

사상의 개념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상의 개념을 단순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사상의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맥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자료를 꼼꼼히 체크해서
선택지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이스토리는 1등급 고난도로 출제되는
성리학과 양명학, 사단 칠정론, 칸트와 공리주의 윤리의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단계별로 문제 풀이 순서를 알려주어
개념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또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찾고
단서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발상’과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입체 첨삭 해설 시스템으로 문제와 자료를 분석하고
정답의 근거와 매력적 오답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수험장 극비 노트]에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그림, 도표 등으로 수록하여,
나만의 비법을 더하여 단권화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여러분은 이미 수능 1등급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0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08, B 01~06		월	일	월	일
2	C 01~44		월	일	월	일
3	D 01~42		월	일	월	일
4	E 01~31		월	일	월	일
5	32~62		월	일	월	일
6	63~82		월	일	월	일
7	F 01~39		월	일	월	일
8	G 01~32		월	일	월	일
9	H 01~28		월	일	월	일
10	29~52		월	일	월	일
11	I 01~28		월	일	월	일
12	29~38, J 01~18		월	일	월	일
13	K 01~43		월	일	월	일
14	L 01~29		월	일	월	일
15	M 01~40		월	일	월	일
16	N 01~32		월	일	월	일
17	33~59		월	일	월	일
18	O 01~48		월	일	월	일
19	49~76		월	일	월	일
20	P 01~32		월	일	월	일
21	33~58		월	일	월	일
22	Q 01~25		월	일	월	일
23	R 01~27		월	일	월	일
24	S 01~32		월	일	월	일
25	T 01~35		월	일	월	일
26	U 01~44		월	일	월	일
27	V 01~27		월	일	월	일
28	모의고사 1~3회		월	일	월	일
29	모의고사 4~6회		월	일	월	일
30	모의고사 7~10회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자이스토리 윤리와 사상 활용법 + α

①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출 선택지로 개념을 꼼꼼히 체크!

- 수능에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테스트합니다.
- **출제** 2026 대비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된 경향을 알려줍니다.



② 등급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 특강”으로 완벽히 마스터!

-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유형과 해당 문제를 푸는 단서, 발상,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 간단한 빈칸 채우기를 통해 특강을 읽으면서 함께 풀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개념별 기출 문제 풀이로 수능 실전력을 높이자!

- 수능 문제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개념과 선택지의 문장을 파악합니다.

④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는 단원별 학습이 끝난 후에 풀어 보세요.

- 실제 시험을 치를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풀어서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시간을 안배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등급컷으로 객관적 실력도 체크)
- 모의고사를 풀 후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틀린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확인하세요.



⑤ 1등급, 고난도 대비 문항은 특강 해설로 마스터하세요!

-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 풀이의 '발상', 문제에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왜 틀렸나', '시간 단축 tip', '문제풀이 tip'을 통해 실전에 바로 활용하는 tip을 알려줍니다.

⑥ 쉽게 이해되는 입체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해설에 제시된 정답의 단서를 파악하고, 함정, 주의, 꿀팁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마세요.



⑦ [수험장 극비 노트]로 수험장 1등급 비법을 꼭 챙기세요!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출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헛갈리는 내용을 보강해서 단권화 노트로 사용하세요.



단원별 핵심 문제 + 중요 문제 동영상 강의 QR코드



- 1 해설의 줄글보다 동영상을 선호하는 경우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 2 해설과 다른 풀이를 알고 싶을 때 확인해 보세요!
- 3 긴 시간 혼자서 공부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해 보세요!
- 4 강의를 통해 어려운 표 분석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풀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I 인간과 윤리 사상

A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12
1 인간의 특성	
2 인간의 본성론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

I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B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18
1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	
2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0
C 공자 · 맹자 · 순자의 윤리 [고난도 대비]	2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5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35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36
D 성리학과 양명학 [1등급 대비]	3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40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50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51
E 도덕적 심성 [1등급 대비]	5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5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5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72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73
F 자비의 윤리	78
1 불교의 근본 교리	
2 부파(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	
3 교종과 선종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8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81
G 분쟁과 화합의 윤리	91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9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93

H 무위자연의 윤리	101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0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04
I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11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1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20
동아리 소개 / 이화여자대학교 흥차 동아리	130

III 서양 윤리 사상

J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13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3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35
K 덕 있는 삶 [고난도 대비]	140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43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52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53
L 행복 추구의 방법	156
1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	
2 스토아학파의 사상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5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9
M 신앙과 윤리	16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6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70
N 도덕의 기초 [고난도 대비]	180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8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83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95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96
O 옳고 그름의 기준 [1등급 대비]	199
1 의무론	
2 공리주의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01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02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21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222

P 현대의 윤리적 삶	224
1 실존주의	
2 실용주의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2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27
동아리 소개/중앙대학교 텃밭 동아리	242

Ⅳ 사회사상

Q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24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4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47

R 국가의 윤리	254
1 국가의 기원과 본질	
2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5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57

S 시민의 윤리 [고난도 대비]	265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67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68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275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276

T 민주주의 [고난도 대비]	277
1 민주주의	
2 시민 불복종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7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80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289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290

U 자본주의	292
1 자본주의	
2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도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9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5

V 평화의 윤리	307
1 동서양의 평화사상	
2 세계 시민주의와 해외원조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0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10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윤리와 사상 등급컷	317
------------------	-----

01회 2025 실시 3월 학력평가	318
02회 2025 실시 5월 학력평가	322
03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326
04회 2026 대비 6월 모의평가	330
05회 2025 실시 7월 학력평가	334
06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338
07회 2026 대비 9월 모의평가	342
08회 2025 실시 10월 학력평가	346
09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50
10회 2026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54

빠른 정답 찾기	359
----------------	-----

중요 문제 +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 총정리 + 단계별 난이도 기출 문제로 수능 1등급 완성

1 최신 수능 출제 경향 분석 + 개념 총정리

교과서 순서에 따라 개념을 총정리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출제 경향 분석: 2026 대비 수능 출제 분석
- **출제**: 2026 대비 수능, 6·9월 모평 문제를 분석하여 최신 출제 경향 제시
- 심화 및 보충 자료: 용어 및 확장 개념 등을 보충 설명
- 꼭 외워!: 각 단원에서 반드시 암기할 내용 총정리



D 성리학과 양명학

★ 2026 수능 출제 분석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마음과 관련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보통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주제이므로 두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완벽하게 분석해두어야 한다.

대비년도	출제 개념
2026 수능	주희와 왕수인 사상 비교
2026 9월	주희와 왕수인 사상 비교
2026 6월	주희와 왕수인 사상 비교
2025 수능	주희와 왕수인 사상 비교

1. 주희의 성리학

(1) 이기론과 심성론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짐

★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
사회적 존재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

2026 대비 수능
2026 대비 9월
2026 대비 6월

★ 6월은 주희와 왕수인
어떻게 출제되었나.

인간 특
성

인간 특
성

인간 특
성

인간 특
성

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개념 순서와 단계별 난이도로 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개념 적용 훈련과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주제별 배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세분화해서 문항 배열
- QR코드: 단원별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C01 ★☆☆ 2026 대비 9월 모평 12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굽은 나무는 반드시 풀을 대어서 불에 켜 뒤에는 곧게 되고, 무딘 쇠붙이도 반드시 솥물에 끓고 닦은 뒤에야 날카로워진다. 이처럼 본성이 악한 사람도 예의(禮義)의 지도를 받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을: 사람들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까지 이르러서 이(理)와 기(氣)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C03 ★☆☆ 2026 대비 6월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중에서

갑: 사람들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까지 이르러서 이(理)와 기(氣)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026 대비 9월 모평 12

2026 대비 6월

- 난이도: ★★ - 상, ★ - 중, ☆ - 하, 1등급, 고난도
- 출처표시: 수능, 평가원 - 대비연도, 학력평가 - 실시연도
 - 2025 실시 3월 학평 20: 2025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 2026 대비 9월 모평 20: 2025년 9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 2026 대비 수능 20: 2025년 11월에 실시한 수능

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 실제 수능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된 자료와 선택지로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정답 및 해설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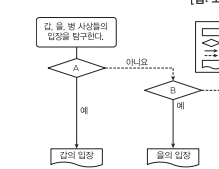
1 인간의 특성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기하시오.

- 윤리적 존재란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 ×)
- 유희적 존재란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
- 서사적 존재란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하는 존재이다. (○, ×)
- 이성적 존재란 정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 ×)
- 도구적 존재는 구체적인 도구를 창조하여 선천적인 욕체의 한계를 극복한다. (○, ×)
- 문화적 존재는 의식적 사고와 자발적 동기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 ×)
- 도구적 존재는 추상적인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심미적 유희를 추구한다. (○, ×)
- 문화적 존재는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 ×)
- 유희적 존재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 ×)

2 인간의 본성론

03 갑, 을, 병의 입장에 맞게 A/B/C/표 [갑 고지]



-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된다.
- 인간은 본성이 악하며, 악함이 선해짐 문이다.
-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지와
-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 교화해야 한다.
- 인간은 본래 도덕성을 지닌 존재이다.
-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식욕과 성욕뿐이

2026 대비 수능

2026 대비 9월

2026 대비 6월

4 1등급,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고난도 문제를 푸는 단서와 발상, 적용법, 유형 대비법, 문제 풀이 순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빈칸 채우기: 특강을 읽으면서 간단한 빈칸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정약용 사상의 이해

이 유영은 제시문을 주창한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후, [보기]에서 해당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찾아서 정답을 고르시오.

다음은 주창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5 대비 6월 모평 12

아니나 옛속에 태어났기 때문, 행체가 일지한 신령스럽고 밝은 본성을 하늘이 부여해 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망을 수지스럼하게 애긴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를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보기]

가,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성체적 이치이다.

나, 사람은 이법칙(理法)의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다, 인간은 선을 행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지닌다.

라, 예(禮)라는 성(性)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이므로 실천할 수 있다.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이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로 구성된다. 따라서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하고 좋아하는 (가)이며 인간은 이러한 영지의 기호와 자주존을 발휘하여 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릇된 기호를 수도 있는 자를 막는 존재이다. 따라서 영지의 기호는 실제적 이치이다.

이러한 정약용의 주장은 선한 본성이 실제적 이치, 즉 천리(天理)로서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성리학의 주장과 구별된다.

가,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성체적 이치이다.

나, 사람은 이법칙(理法)의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다, 인간은 선을 행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지닌다.

라, 예(禮)라는 성(性)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이므로 실천할 수 있다.

2026 대비 수능

2026 대비 9월

2026 대비 6월

★ 최신
모의고사
최다 수록

- 2025년 시행 7회: 전문항
- 2024년 시행 3회: 수능, 6월과 9월 모평
- ※ 최신 모의고사 10회분 등급컷 수록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따로 1등급 대비, 고난도 대비로 분리해 수록했습니다.

★ **고난도 대비**: 정답률이 50~60% 내외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1등급 대비 기술 문제

D38 1등급대비 2023 대비 예상 문항 3

그림은 중국 유류 사설이 간, 물의 기압 차이 때문이다. 간, 물의 압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시간은 대략 40초이다.
[정답은 22%] 1등급대비

그림은 중국 유류 사설이 간, 물의 기압 차이 때문이다. 간, 물의 압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시간을 대략 40초이다.
[정답은 22%] 1등급대비

그림은 중국 유류 사설이 간, 물의 기압 차이 때문이다. 간, 물의 압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시간을 대략 40초이다.
[정답은 22%] 1등급대비

그림은 중국 유류 사설이 간, 물의 기압 차이 때문이다. 간, 물의 압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판 10주년 기념

Xi story

수험생
극비노트

김희정

— Hanbit Publishing Co., Ltd. 02-8200-8888
— 100-740 Seoul, Korea (www.hanbit.co.kr)
— 02-8200-8888, 02-8200-8889

한빛출판

- [illegible]

문제+자료 분석

정답률

출처

선택지 분석

함정

수험장 생생 체험

왜 틀렸나?

문제 풀이 Tip

출제 개념
문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참삭 해설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알려줍니다.

수능 해강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꼭 짚어 알려줍니다.

발상 단서를 통해 문제 풀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KEY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꼭 암기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E 04 정답 ③ • 이항과 이의의 일정 ...

한국 사람이 값, 일의 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이항)과 기(기쁨)는 본래 서로 결합하여 형체가 되고 서로의 기
운이 조화되어 작용하게 되고, 진실로 기가 없는 기가 없고, 기
가 없는 이가 없다. 그러하기 내가 말한 바와 다른데 본래부터
있을 수 있다. → 이항 이의가 서로 사하지 않는 관념적 **상호 작용**
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의 근원도 하나일 뿐이고, 기의 근원도 하나일 뿐이다. 기가
유형화한 청탁비행의 이항이고 기가, 이 또한 유형화한 청탁비행의
원리이다. 그러하기 이를 떠나지 않고, 이는 기를 떠
나지는 이항을 유형화한 이의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단절적 **상호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이항

① 갑은 사단을 논리적으로, 철학을 일반 가정으로 본다.
이항은 순환적(원인 사단은 이의 변화로, 원인도 효를 기능하여)하는 논리를 일반
가정한다.

② 갑은 사단을 이의, 철학을 기가 주도하여 발휘된 것이라고 본다.
이항은 이항도 설명한 사단은 이의 변화로, 일반 설명한 철학은 기가 발전으로 본다.

③ 갑은 본래부터 사단은 순, 철학은 기가 주도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이항에 대한 사단의 설명은 철학의 기가 주도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D
39
정답 ④

★ 추리와 환승인의 사명 비교

중국 유교 사상이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담을 할 집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D

해설

① “격물(格物) 두 글자를 성인(聖人)이 말한 것은 **사물을 나아자** 이해하게 하고자 함이다.” (격(格)은 완전히하게 하는 것이니, 격(格)은 **나아자**이다.)
 2~3할 정도 궁구한다면 그것은 아직 격물이 아니다. 반드시 10할을 다 궁구해야 격물이 격된다.”
 “치(致)학(學) 두 글자는 성학(聖學)에서 비밀의 전제해 온 것이다. **이런 것이 불망인(不忘) 것은 ‘격(格)’이 비교만 아닌 치(致)=치(致)학+일 +을**이다.”
치지는 아니다. 반드시 그 지를 지극한 대까지 확충해야 지치지다. **치양지(致良知) 밖에 다른 학은 없다.**

→ **치행법임을 주장함**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 **단서 + 발상**
- ▶ **단서** : 객관, 사물을 나아가 이해하게 하고자 함
 ◦ **물** : 지를 지극한 데까지 확충해야 치지, 치양지
- ▶ **발상** : 같은 주제(성리학), 같은 왕수인(양명학)이다.
- ▶ **KEY** : 주희는 성리학, 선지후행, 마음 바깥의 이치 탐구를 강조하는 반면, 왕수인은 성리학, 지행합일, 마음의 양지 발휘를 강조한다.

[문해+자료 분석] * 갑 이해: 주희의 주장 중 ‘이와 기는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 기화(기화)에 대한 이의 우물쭈문 강조됨. 이와 기는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았을 때, 기는 물론이고 이도 운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였음 [선택지 분석] ㉠ 기화발생론을 주장한 이황과 기암이철두독음을 주장한 이는 모두 철학자가 기를 밝히고 이와 기를 본 것’으로 본다. * 이황과 이미의 사단칠정론 <table border="1"> <thead> <tr> <th>이황</th> <th>이미</th> </tr> </thead> <tbody> <tr> <td>• 사단은 기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 [發理乘理之說] 이마(이치)·이(이), 칠정은 기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 [氣復乘理義之說] 이마(이치)·이(이)</td> <td>•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참조사: 七情四端] 사단은 칠정의 산인 칠현(산·현)만을</td> </tr> </tbody> </table>	이황	이미	• 사단은 기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 [發理乘理之說] 이마(이치)·이(이), 칠정은 기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 [氣復乘理義之說] 이마(이치)·이(이)	•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참조사: 七情四端] 사단은 칠정의 산인 칠현(산·현)만을	
이황	이미				
• 사단은 기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 [發理乘理之說] 이마(이치)·이(이), 칠정은 기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 [氣復乘理義之說] 이마(이치)·이(이)	•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참조사: 七情四端] 사단은 칠정의 산인 칠현(산·현)만을				

안지연 서울대 인문 계열 2021년 입학 · 서울 청덕여고 졸
이 문제에서는 갑, 을이 각각 ‘이름 기와 함께 말하’는 것, ‘장애 두 근원이 있다’는 견해를 부정적으로

..... **★ 1등급 대비 [정답률 45%]** 2023 실시 3월 학평

문제 풀이 순서]

㉠ 제시문의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같은 격률용 ‘사물에 나아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사물에 이치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주희이다.

율은 ‘아는 것’만으로는 치치가 아니라고 보며,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치명지를 강조한 왕양민이다.

Q2 ㄱ-ㄴ의 질문에 대한 각 사상의 입장을 확인한다.

ㄱ-ㄴ 중에 갑 또는 을, 아니면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모두 골라야 한다.

틀렸나?

을(왕수인)은 갑(주희)이 주장한 선지후행을 비판하여 지행합일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행합일설을 단순히 「이미」 획득한 일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민 문제를 맞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 풀이 Tip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학자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양의 사상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둘러싼
 전제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해당 문장의 경우 '이름'과 '이치는 하나라'는 표현을 통해 제1문단의 사상이자
 '이름'과 '이치는 항상 일치'라고 오해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두도 '이치'가
 모든 사물에 있다는 점, 그 이치가 천리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을 통해 주의깊게
 파악해야 한다. (정답)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내신 +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이현우 서울 당곡고등학교
정선우 인천 대인고등학교
조승연 서울 장충중학교

주미림 원주 미래고등학교
한혜정 고양 저현고등학교

중요 문제 +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남윤정 선생님

[특별 감수진]

권영수 문경 마성중학교
김경아 용인 상현고등학교

양선희 제주 남녕고등학교
유현상 광양 광양제철고등학교

임은영 안산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감수진]

강대성 서울 대입정보학원
구혜지 서울 풍문고등학교
김경민 포천 동남고등학교
김남규 제주 제주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서울 (강남)썬학원
김병욱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김상준 무안 무안고등학교
김성희 포항 대동고등학교
김영우 서울 배재고등학교
김윤미 전주 유일여자고등학교
김윤희 서울 장충고등학교
김일영 대치청연학원, 광릉한샘기숙학원
김정민 남양주 다산 민스터디학원
김정선 울산 역사놀이터앤김쌤사회탐구
김주영 울산 사회탐구생활사회교습소
김태현 포항 포항중앙고등학교
남현지 아산 온양용화고등학교
류상준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문수빈 창원 창원경일고등학교
박경호 포항 유성여자고등학교
박은미 서울 금천고등학교
박지훈 서울 SR사회탐구학원
박진경 창원 창원남고등학교
박진수 광주 광주동신고등학교
박진우 서울 송파사회탐구학원
배탐스 안양 삼성학원
백지민 대전 우송고등학교
서무경 부산 대연고등학교
성지윤 진주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송남용 성남 송신여자고등학교
송유하 서울 영신고등학교
송은섭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양현철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오재성 화성 비봉고등학교
유영진 부산 센텀중학교
윤성집 안성 수만회기숙학원

이남미 전주 전주사대부속고등학교
이보람 서울 현대고등학교
이은정 서울 성덕고등학교
이재원 경주 경주여자고등학교
이한빈 서산 서일고등학교
임종모 고성 고성고등학교
장연정 창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장재혁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
정민교 영천 영천여자고등학교
정지현 서울 서울예술고등학교
주창현 전주 전라고등학교
최규범 경산 경산여자고등학교
최성영 대전 포텐셜학원
최승규 부산 신정고등학교
최원석 안성 고려대치샘
하규봉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황 정 대구 김황성 사회
황혜란 광주 서강고등학교



수능 선배들의 **비법** 전수 - 수험장 생생 체험 소개



긴장되고 떨리는 수험장에서 선배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나만의 풀이 비법을
자이스토리 해설편에 수록했습니다.

• 2025년

강다은 대구 계성고 졸 (서울대 의예과)
김연우 대구 청화여고 졸 (연세대 의예과)
김효원 제주 제일고 졸 (서울대 의예과)
박정빈 대구 남산고 졸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배지오 성남 낙생고 졸 (연세대 약학과)
백승준 광주송일고 졸 (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서정후 광주 송덕고 졸 (아주대 의학과)
성예현 대전전민고 졸 (건국대 의학과)
안한민 익산 남성고 졸
오현준 서울 한영고 졸 (경상대 약학과)
이정근 안양 평촌고 졸 (동국대 wise 의예과)
이지원 대구 성화여고 졸 (고려대 생명과학부)
임지호 부산 동아고 졸 (울산대 의예과)
장운서 부산 사직여고 졸 (중앙대 간호학과)
정규원 부산 남성여고 졸
최승우 광주서석고 졸 (서울대 약학계열)
최아람 서울 광영고 졸 (서울대 국어교육과)
한규진 대구 계성고 졸 (연세대 치의예과)

• 2024년

곽지훈 서울 한영외고 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권민재 서울 광영여고 졸 (강릉원주대 치의예과)
김동현 안성 안법고 졸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김서현 대전한빛고 졸 (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김신유 익산 남성고 졸 (순천향대 의예과)
김아린 대전한빛고 졸 (충남대 의예과)
김용희 화성 화성고 졸 (단국대 의예과)
김지희 광주 국제고 졸 (고려대 한국사학과)
김태현 부산 대연고 졸 (서울대 수리과학부)
류이레 광주대동고 졸 (연세대 의예과)
문지민 대구 청화여고 졸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변준서 화성 화성고 졸 (건국대 수의예과)
심기현 대구 계성고 졸 (경북대 의예과)
오서윤 서울 광문고 졸 (충남대 의예과)
전성연 부산국제고 졸 (서울대 사회학과)
조수근 성남 태원고 졸 (순천향대 의예과)

👑 2026 응시 👑



강기현
천안 천안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김서영
서울 잠실여고 졸업
- 생명과학 I



김서호
안양 신성고 졸업
- 고3 미적분



김연준
안성 안법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김윤
익산 이리남성여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김준성
부산 대연고 졸업
- 화학 II



김준영
서울 강서고 졸업
- 고3 확률과 통계



김준희
부산 동천고 졸업
- 세계지리



박수현
대구 대진고 졸업
- 수능 한국사



박에서
화성 안화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수학 II



박준서
부산 대동고 졸업
- 지구과학 I



방진환
부산 해운대고 졸업
- 고3 기하



우다솔
서울 중앙고 졸업
- 물리학 I



원강희
대전동산고 졸업
- 화법과 작문 실전



이영서
대구 대진고 졸업
- 생명과학 II



이지민
광주대동고 졸업
- 동아시아시아



이현수
부산 대동고 졸업
- 화학 I



임준호
광주 문성고 졸업
- 지구과학 II



임지안
광주 금호중앙여고 졸업
- 문학 실전



전상훈
서울 대원고 졸업
- 독서 실전



전시원
대전 한밭고 졸업
- 언어와 매체 실전



정윤서
부산 사직여고 졸업
- 생활과 윤리



정희주
익산 이리남성여고 졸업
- 윤리와 사상



최경준
광주서석고 졸업
- 한국지리



한기주
화성 삼괴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수학 II



홍서연
남양주 도농고 졸업
- 사회·문화

문항 배열 및 구성 [1064제+개념 체크 문제 512제]

1 최신 5개년(2026~2022) 수능+6, 9월 모평+고3 학력평가 전문항 수록 [700제]

- 최신 5개년 35회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최신 수능의 경향과 유형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2021 이전 수능+6, 9월 모평+고3, 고2 학력평가 문제 수록 [164제]

- 실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기출문제들을 선별 수록하였습니다.
- 철저한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 수능에 나올 문항만을 수록하였습니다.

3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200제]

- 2025년 7회: 전회차 수록
- 2024년 시행 3회: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 수록
- 회차별 등급컷(원점수, 표준점수) 수록

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512제]

-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 문제를 제시하여 개념을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윤리와 사상 수록 문항 구성표]

대비연도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합계	비고	
2026	20	20	20	20	20	20	20	140	* 전문항 수록 (문제 특강 6문항 포함)	
2025	20	20	20	20	20	20	20	140		
2024	20	20	20	20	20	20	20	140		
2023	20	20	20	20	20	20	20	140		
2022	20	20	20	20	20	20	20	140		
2021	18	20	20	20	20	19	19	136	* 새교육과정 선별 수록	
2020	1	0	1	1	3	2	3	11		
2020 이전	11							11		
고2	3							3		
생윤	T 민주주의(시민 불복종) 2문항 + V 평화의 윤리(해외원조) 1문항							3		
총 문항 수									864	연도별 모의고사 200

2026 대비 6월, 9월 모평+수능

윤리와 사상 문항 배치표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1	F03	J01	H07
2	U03	H02	O25
3	O29	F01	J03
4	E68	P34	T02
5	N02	K02	D01
6	E03	N03	M01
7	S29	E02	E07
8	O30	U25	U02
9	R03	G01	S01
10	I03	M02	F27
11	D04	N49	N01
12	H03	C01	G04
13	P37	O27	P01
14	O71	O72	K01
15	V01	D02	H01
16	F39	R02	E01
17	M03	E67	K35
18	U26	S03	O70
19	K03	T01	R01
20	C03	I02	I01



무위자연의 윤리

★ 2026 수능 출제 분석

- **장자의 사상**: 6, 9월 모평에 이어 수능에도 장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장자가 주장한 이상적인 경지를 비롯하여 좌망, 심재 등의 수양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노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 노자와 맹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비년도	출제 개념	난이도
2026 수능	장자의 사상 / 노자와 맹자의 사상	★/★
2026 9월	노자와 장자의 사상	★
2026 6월	노자와 장자의 사상	★
2025 수능	맹자와 장자의 사상	★

1. 노자의 사상

(1) 사회 혼란의 원인과 극복 방안

사회 혼란의 원인	•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 제도
극복 방안	• 도(道)에 따라 소박하고 순수한 덕(德)을 회복함 •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무위(無爲)를 실천함

(2) 도(道)의 의미와 특징

의미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의 변화 법칙
특징	•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 • 인간의 언어로 한정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 • '되돌아감[反]'이 도의 참다운 운행 법칙임 → 만물은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발전하고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감

(3) 이상적인 삶과 이상 사회

무위자연(無爲自然)	•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 무지(無知), 무욕(無欲)의 덕을 갖추어야 함
상선약수(上善若水)	• 최고의 선은 물[水]과 같음: 물처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 •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겸허(謙虛)], 만물을 이롭게 하고 [이만물(利萬物)], 남과 다투지 않음 [부쟁(不爭)]
소국 과민(小國寡民)	• 나라(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 •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
무위지치(無爲之治)	•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 •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 나감

2. 장자의 사상

(1) 도(道)

- ① 편재성(遍在性):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천지 만물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 ② 도에서 덕³이 생기고, 덕에서 구체적 사물이 생기며, 구체적 사물이 생기면 본성이 있게 됨
- ③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

(2) 이상적인 경지(삶)

제물(齊物)	•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함 • 제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 미추, 빈부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런 모든 차별이 의미 없음
소요유(逍遙遊)	•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앴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경지
물아일체(物我一體)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

출제 2026 대비 수능 1, 15번
2026 대비 9월 모평 2번
2026 대비 6월 모평 12번

★ 6월과 9월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파악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수능은 장자의 사상을 파악하는 문제, 노자와 맹자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① 유·불·도의 도(道)

유교	인간이 따라야 할 당위 법칙 →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음
불교	깨달음이나 깨달음을 위한 수행 방법
도교	우주 만물의 근원 → 절대적, 형이상학적이기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음

② 무위의 정치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 노자, “도덕경”—

③ 노자의 덕(德)

상덕(上德)	어린이처럼 꾸밈이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자연과 합치되는 무위와 무욕의 태도
하덕(下德)	유가에서 제시하는 인의의 덕으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의도가 개입된 것

도(道)는 기와나 지푸라기에도 있고, 오줌과 똥에도 있느니라!

장자



제자들의 “도는 어디에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장자는 만물 어디에나 도가 깃들어 있다고 대답하였다.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기하시오.

- ① 노자는 예(禮)의 규범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 ×)
- ② 노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무위(無爲)의 덕을 강조한다. (○, ×)
- ③ 노자는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도둑은 줄어든다고 본다. (○, ×)
- ④ 노자는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 분별적인 지혜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 (○, ×)
- ⑤ 노자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아야 무위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
- ⑥ 장자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자신의 덕(德)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 ×)
- ⑦ 장자는 누구나 좌망을 통해 도(道)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⑧ 장자는 성인은 시비(是非)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 ×)
- ⑨ 장자는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 ×)
- ⑩ 장자는 인의의 덕을 수양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고 본다. (○, ×)
- ⑪ 황로학파는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노자를 숭상하였다. (○, ×)
- ⑫ 황로학파는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았으며,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면서 삼관수서(三官手書)를 행하였다. (○, ×)
- ⑬ 죽림칠현은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여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였다. (○, ×)
- ⑭ 도교 사상은 생명을 중시하여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추구하고 양생(養生)을 중시하였다. (○, ×)
- ⑮ 도교 사상은 도에 이르기 위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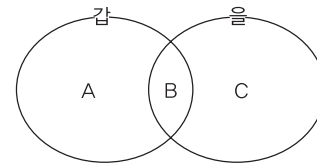
제물 좌망 심재 무위 소요 청담

- ① 노자는 이상적인 정치의 방법으로,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인 ()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 ② ()은/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다’라는 의미로,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이다.
- ③ ()은/는 장자의 수양 방법으로,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 ④ ()은/는 세속적 가치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와 가치를 중시한 담론을 말한다.
- ⑤ 세속의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H

03 갑, 을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시오.

[갑: 순자, 을: 장자]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하늘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근원이 될 수 없다. (A / B / C)
- ② 인간의 타고난 마음에 도덕적 단서가 없음을 알고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 (A / B / C)
- ③ 예의(禮義)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A / B / C)
- ④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 / B / C)
- ⑤ 수양을 통해 자신이 고집하는 앎[知]을 제거해야 한다. (A / B / C)

정답

- 01 ① ×(노자는 예의규범을 반대함) ②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함) ③ ×(노자는 법령이 엄격해질수록 도둑이 늘어난다고 봄) ④ ×(노자는 분별적 지혜를 버려야 한다고 봄) ⑤ ×(무위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뜻임) ⑥ ○(장자는 모든 것이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봄) ⑦ ×(장자는 도를 인간의 언어에 의해 표현될 수 없는 것으로 봄. 따라서 도는 개념적으로 이해될 수 없음) ⑧ ○ ⑨ ○ ⑩ ×(장자는 인의와 같은 인위적 덕목을 버려야 한다고 봄) ⑪ ○ ⑫ ×(오두미교에 대한 설명임) ⑬ ○ ⑭ ○ ⑮ ○

- 02 ① 무위 ② 소요 ③ 좌망 ④ 청담 ⑤ 제물

- 03 ① B(순자와 장자 모두 하늘을 인간과 무관한 자연 그 자체로 봄) ② A(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규범을 내면화하여 본성을 교화할 것을 주장한 것은 순자임) ③ B(순자와 장자 모두 예의를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순자는 예의를 외면적 규범이자 재화의 분배 기준으로 본 반면, 장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봄) ④ B(순자와 장자 모두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성인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 ⑤ C(장자는 분별적 지식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봄)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PRACTICE QUESTION

H01

2026 대비 수능 15



고대 동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 물은 모든 사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것들과 다투지 않는다.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므로 도(道)와 가깝다.
그러므로 최상의 좋음은 마치 물과 같다[上善若水].
을: 물은 그 흐름에 있어 동쪽이나 서쪽의 구분은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은 있다. 마치 물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사람은 그 본성에 있어 선하고자 한다[性善].

- ① 가: 인간의 소박한 자연성을 법률과 제도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 ② 가: 백성은 무위(無爲)의 삶을 위해 이론적 지식을 확충해야 한다.
- ③ 을: 항산(恒産)은 백성의 도덕성 유지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 ④ 을: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본심(本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 ⑤ 가와 을: 도덕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예(禮)를 강조해야 한다.

H02

2026 대비 9월 모평 2



고대 동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가운데가 텅 빈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이 무한하다.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으니 [不仁]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聖人)도 편애하지 않으니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을: 샘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맨흙 위에 나오게 되자 서로 입김을
불어넣어 주고 상대방을 침의 거품으로 적셔 주는 것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 [相忘]만 못하다.
진인(真人)은 덕을 지니고 조화된 마음으로 천하에 순응한다.

[보기]

- ㄱ. 가: 무지하고 무욕한 사람이 되어야 소박한 덕을 회복할 수 있다.
- ㄴ. 가: 만물 간 위계를 확립하여 부쟁(不爭)을 실현할 수 있다.
- ㄷ. 을: 모든 분별을 잊어서 잊되[坐忘]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한다.
- ㄹ. 가와 을: 사회적 분란을 막기 위해 예법(禮法)을 고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H03

2026 대비 6월 모평 12



고대 동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인(仁)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음으로 하고, 의(義)를
지닌 사람은 함이 있음으로 하며, 예(禮)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도록 한다.
큰 도(道)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을: 인과 의를 잊고 예와 악(樂)을 잊으며, 감각 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마저 떠나서 완전히 통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큰 도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坐忘]에 도달할 수 있다.

[보기]

- ㄱ. 가: 예법(禮法)이 아니라 인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 ㄴ. 가: 만물의 근원인 도는 언어로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 ㄷ. 을: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진인(真人)이 될 수 있다.
- ㄹ. 가와 을: 타고난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H04

2025 실시 10월 학평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령과 제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덕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행동하였다. 마음을 담담한 곳에 노닐게[遊] 하고
기운을 고요한 곳에 모아 놓으며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보기]

- ㄱ. 무위의 다스림을 실현하려면 예의 규범을 세워야 한다.
- ㄴ. 도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ㄷ. 덕이 지극한 세상이 되려면 현명한 이를 숭상해야 한다.
- ㄹ.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관념을 잊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제시문의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후, 선지 중에서 사상가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로 주로 출제된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4 대비 9월 모평 17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대상들 중 최고이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①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②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 ③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 ④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 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단서+발상

- [단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
- [발상]**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철학적 지혜를 행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덕이라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이다.
- [KEY]**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선은 행복이고, 행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덕은 철학적 지혜이며, 철학적 지혜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덕이라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을 파악한다.

- 고대 서양 사상가는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지성적 덕인 철학적 지혜는 신, 자연과 같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고귀한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의 덕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지성적 덕이 선에 대한 숙고와 진리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1**임을 알 수 있다.

step 2 선택지의 내용이 사상가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①~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본다.

| 선택지 분석 |

①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덕은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의 덕(철학적 지혜)이라고 주장하였다.
- 철학적 지혜는 **2**이 아니라 **3**이다.

②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양한 '선(좋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 각각의 선이 이바지하는 보다 상위의 선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 즉 **4**(最高善)에 도달하게 된다.
-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최종적인 목적, 즉 최고선이라고 보지만, 유일한 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양한 선(좋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크게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이성과 관련 없는 영양이나 성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이성의 영향을 받는 감정이나 욕구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인 감정이나 욕구의 부분이 항상 이성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5**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본다.
-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발휘 없이 덕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보지 않는다.
- * ④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은 영혼의 순수하게 이성적인 기능이 탁월하게 작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덕이라고 본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의 예로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등을 제시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6**지혜이며,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는 **7**지혜이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구분된다.

∴ 정답은 ⑤이다.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의 특징, 그리고 지적인 덕 중에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의 특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4

해설 9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3점]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FOR THE SECOND CLASS LEVEL

K35 ★ 고난도 2026 대비 수능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눈의 탁월성은 보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고 그 눈을 좋은 눈으로 만든다. 발의 탁월성은 걷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고 그 발을 좋은 발로 만든다. 그렇다면 인간 자체에도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영양 섭취와 생장은 인간뿐 아니라 식물에도 있으니 인간 영혼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 감각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도 있으니 제외해야 한다. 남는 것은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니 이것이 곧 행복이다.

[보기]

- ㄱ.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욕구적 부분에만 귀속되는 덕이 있다.
- ㄴ. 좋은 분별력은 품성적 덕을 동반할 뿐 그 자체가 덕은 아니다.
- ㄷ. 삶의 목적적 위계의 최정점은 좋음의 위계의 최정점과 같다.
- ㄹ.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K36 ★ 고난도 2025 대비 9월 모평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가서 물속에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 ㄷ. B: 좋음이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K37 ★ 고난도 2024 실시 3월 학평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악덕은 한편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모자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반면, 탁월성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한다. 탁월성은 본질을 말하는 정의(定義)를 따르자면 중용이지만,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관점을 따르자면 극단이다.

- ① 이성을 발휘하면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용기는 항상 무모함과 비겁함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덕이다.
- ③ 이론적 학습과 탐구만으로는 어떠한 탁월성도 갖출 수 없다.
- ④ 선에 대한 앎을 갖춘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
- ⑤ 모든 행위는 모자람과 지나침이라는 두 악덕의 상태를 갖는다.

K38 ★ 고난도 2022 대비 수능 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피리 연주자 같은 기술자의 좋음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다. 손, 발, 눈 같은 자연적 기관들의 좋음도, 동식물 같은 자연적 존재들의 좋음도 각각의 기능에 있다. 한 사물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 주는 탁월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각 기술적 행위나 자연적 기관들에 목적이 있듯, 인간이든 국가든 각각의 존재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기에 있다.

[보기]

- ㄱ. 좋은 삶은 개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ㄴ.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 ㄷ. 좋음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
- ㄹ. 사물의 좋음과 목적을 알려면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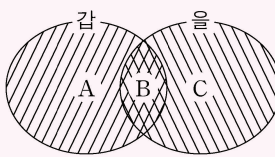
벤담과 밀의 입장 비교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갭, 을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후, 각 사상가만의 입장과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을 찾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갭,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5 대비 6월 모평 7

(가)	갭: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
(나)	 〈범례〉 A: 갭만의 입장 B: 갭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갭: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중시함
 을: 쾌락의 양과 질적 차이를 인정함

발상 갭은 벤담, 을은 밀이다.

KEY 두 사상가 모두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행위의 1를 중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벤담과 밀은 모두 쾌락의 양을 고려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갭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이다.
- 을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밀이다.

step 2 벤다이아그램의 A~C에 대한 갭, 을 사상가의 입장을 판단한다.

- <보기>의 선택지가 벤다이아그램의 A, B, C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 갭(벤담)의 입장 판단:** 갭(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오직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2를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을(밀)도 쾌락의 양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 ㄱ은 갭(벤담)과 을(밀)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 갭(벤담)의 입장 판단:** 갭(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 따라서 갭(벤담)과 을(밀)은 좋은 결과나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3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나쁜 수단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

* ㄴ은 갭(벤담)과 을(밀)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갭(벤담)의 입장 판단:** 갭(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양적으로 더 많은 쾌락은 양적으로 더 적은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질적 공리주의 입장에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낮은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본다.

* ㄷ은 갭(벤담)과 을(밀)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단순한 4쾌락은 5쾌락보다 저급한 쾌락이라고 본다. 그러나 을(밀)은 저급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감각적 쾌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을(밀)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ㄹ은 을(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정답은 ③ ㄴ, ㄷ이다.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벤담과 밀 모두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둘 다 쾌락의 양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설 5 해설 7 해설 8 해설 9 해설 10 해설 11 [모의]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FOR THE FIRST CLASS LEVEL

070 ★1등급 대비 2026 대비 수능 1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성은 실천적 능력으로서, 즉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할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서 선택한 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택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 ② 의지만 있다면 자연 본성 자체는 욕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 ③ 이성은 선택한 의지를 가진 개인에게만 고유할 뿐 보편적일 수 없다.
- ④ 인간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체적 선이다.
- ⑤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택한 의지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

071 ★1등급 대비 2026 대비 6월 모평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을,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이성이 의지를 반드시 규정한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 ① 정언 명령에 따르는 의무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②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객관적 법칙을 의욕한다.
- ③ 의지는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
- ⑤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법칙 준수를 위해 경향성을 배제해야 한다.

072 ★1등급 대비 2026 대비 9월 모평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선의지는 자기가 성취하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목적 달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다. 유익이나 무익은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의무 및 도덕성의 원리를 인간 본성의 특수한 성질에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 ①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에 있다.
- ②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일 뿐 무제약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 ③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에 근거할 수 없다.
- ④ 선의지의 의욕은 곧바로 객관적 법칙에 복종할 뿐 준칙을 갖지 않는다.
- ⑤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 방해받으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073 ★1등급 대비 2025 대비 수능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 윤리와 사상 등급컷

※ 컷 구분 원점수는 실제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회 [2025년 실시 3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2	73
2	34	65
3	25	57
4	18	50
5	13	45
6	10	42
7	7	40
8	5	38

6회 [2025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8
2	40	64
3	35	59
4	27	53
5	18	45
6	14	42
7	10	38
8	7	36

2회 [2025년 실시 5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4	70
2	37	64
3	40	58
4	23	51
5	16	45
6	13	42
7	9	39
8	7	37

7회 [2026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2	69
2	37	64
3	31	59
4	23	51
5	16	45
6	13	42
7	10	39
8	6	36

3회 [2025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2	71
2	36	65
3	28	57
4	22	51
5	16	45
6	13	42
7	10	39
8	7	36

8회 [2025년 실시 10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4	67
2	41	65
3	35	60
4	25	52
5	16	45
6	11	40
7	9	39
8	7	37

4회 [2026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7
2	41	64
3	36	60
4	27	53
5	17	45
6	12	41
7	9	38
8	7	37

9회 [2025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3	68
2	38	64
3	33	60
4	24	52
5	15	44
6	12	42
7	9	39
8	6	37

5회 [2025년 실시 7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8
2	40	64
3	34	59
4	25	52
5	16	45
6	11	41
7	9	39
8	7	38

10회 [2026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7
2	41	64
3	36	59
4	28	53
5	20	46
6	14	41
7	10	38
8	7	35



★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제한시간: 30분]

- 01회 2025 실시 3월 학력평가
- 02회 2025 실시 5월 학력평가
- 03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 04회 2026 대비 6월 모의평가
- 05회 2025 실시 7월 학력평가
- 06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 07회 2026 대비 9월 모의평가
- 08회 2025 실시 10월 학력평가
- 09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 10회 2026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회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471~473p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스승님, 윤리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이끄는 기술이라네.

3 그렇다면 행복의 양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4 일곱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행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그중 한 기준이라네.

- 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한다.
- ② 참된 실존의 회복을 위해 보편적 도덕 원리를 초월한다.
- ③ 어떠한 감정에도 초연하기 위해 이성을 계발하여 사용한다.
- ④ 실천 이성이 수립한 법칙에 따라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한다.
- ⑤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삶에서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중간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중간은 이성이 명령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은 서로에게도, 중간에게도 반대이다. 품성적 덕은 어떤 중간과 관련이 있다.

- ① 궁극적 좋음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에서만 실현된다.
- ② 인간의 악한 행동은 모두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생겨난다.
- ③ 이성은 모든 감정에서 양극단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
- ④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이며 지성적 덕에 속한다.
- ⑤ 이성애 따라 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품성적 덕을 갖추 수 있다.

3.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 이는 세상이 절대자의 손에 있으므로 모든 일이 절대자의 방식대로 진행되도록 맡겨두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대자는 위안을 주는 그만큼의 현금 가치를 지닌다.

< 보 기 >

- ㄱ. 관념의 참됨은 고정된 속성이며 관념에 내재되어 있다.
- ㄴ. 유용성이 증명된 지식도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다.
- ㄷ. 신학은 실생활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현금 가치를 지닌다.
- ㄹ. 신념은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만 진리로서 판정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고대 동양 사상이 감, 율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욕하였는데 이것을 소박함이라 한다. 소박함으로써 본성은 보전된다. 하지만 인의를 행하여 도(道)에서 벗어나고 예(禮)를 제정하자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었다.

을: 군주가 인(仁)을 좋아하면 천하에 적이 없다. 백성에게 인하지 못했음에도 작은 나라를 얻은 경우는 있었으나 천하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은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 보 기 >

- ㄱ. 갑: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ㄴ. 을: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恒産]을 보장해야 한다.
- ㄷ. 을: 군주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인을 실현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의로운 행위를 쌓아야 [集義]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가)의 중국 불교 사상이 감, 한국 불교 사상이 율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아직 자성(自性)을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본성이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당장에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곧 견성(見性)이다.

을: 본래 자성이 공(空)하고 고요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았지만 습기(習氣)는 제거하기 어렵다. 깨달은 후에도 오랫동안 비추고 살펴 마치 소를 기르듯 수행해야 한다.

(나)

사상가 감, 율의 입장을 탐구한다.

다이아몬드 A

예

다이아몬드 B

예

갑의 입장

아니요

다이아몬드 C

예

율의 입장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① A: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같은 것인가?
- ② A: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 ③ B: 탐욕에 빠진 중생은 불성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한가?
- ④ B: 깨달음 이후의 수행은 해탈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가?
- ⑤ C: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도 단박에 깨달는 것이 가능한가?

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차별하여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른 것이고 두루 서로 사랑하는 것[兼相愛]은 옳은 것이다. 옛날 문왕이 두루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부모와 형제에게도 사사로움이 없었고 상벌이 공평했다.

을: 대규모의 구조적 폭력은 나중에 차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노예로서 미국으로 강제 이송된 아프리카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 확산되었고 인종 차별적 사고와 함께 문화적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 ① 갑: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복 전쟁은 정의롭다.
- ② 갑: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립한다.
- ③ 을: 문화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침해를 은폐하기도 한다.
- ④ 을: 적극적 평화 추구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차별 행위의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이상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세 계층,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자의 일을 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을: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재화가 충분하여 필요한 물품을 대가 없이 사용하지만 사치나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나)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① 갑: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 ② 갑: 모든 계층에게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③ 을: 사람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여가 활동만 즐깁니다.
- ④ 을: 물질적으로 빈곤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 ⑤ 갑과 을: 개인의 선호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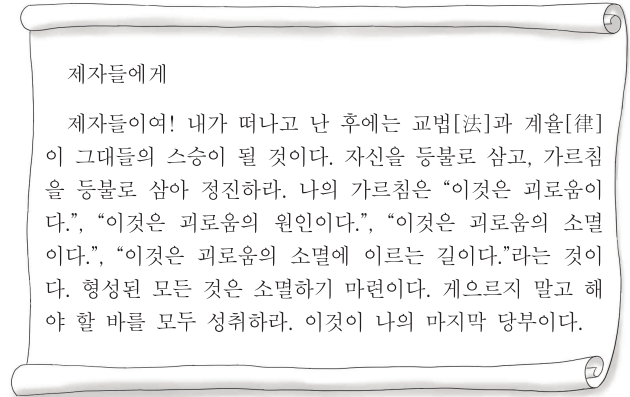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 달리 말해, 인간은 신의 양태로서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본질 및 존재는 신의 본성에서 연역된다.

을: 만약 신이 없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 즉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는 무엇이다.

- ① 갑: 신은 실체이며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 ② 갑: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을: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항상 주체적으로 행위한다.
- ④ 을: 인간은 실존적 삶을 살기 위해 자유 자체를 선택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본모습이 즐거움임을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 ② 지혜는 수행의 결과일 뿐이며 수행의 수단은 아니다.
- ③ 사물에 대한 애착[取]이 자비를 실천하는 바탕이 된다.
- ④ 사성제 간의 관계는 인과(因果)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
- ⑤ 양극단을 벗어난 수행으로써 존재의 무상함을 통찰해야 한다.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바람직한 것은 그것에 내재한 쾌락 때문에, 또는 쾌락 증진과 고통 방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런데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지성, 도덕 감정 등에서 얻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을: 세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밖에서도 제한 없이 선택하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 보 기 >
- ㄱ. A: 모든 도덕적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쾌락을 증진한다.
 - ㄴ. B: 행복은 의무에서 나온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 ㄷ. B: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다.
 - ㄹ. C: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차례

빠른 정답 찾기 2

I 인간과 윤리 사상

A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04

I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B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08

C 공자 · 맹자 · 순자의 윤리 [고난도 대비] 11

D 성리학의 양명학 [1등급 대비] 34

E 도덕적 심성 [1등급 대비] 58

F 자비의 윤리 111

G 분쟁과 화합의 윤리 131

H 무위자연의 윤리 147

I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173

III 서양 윤리 사상

J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192

K 덕 있는 삶 [고난도 대비] 201

L 행복 추구의 방법 227

M 신앙과 윤리 242

N 도덕의 기초 [고난도 대비] 262

O 옳고 그름의 기준 [1등급 대비] 297

P 현대의 윤리적 삶 339

IV 사회사상

Q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368

R 국가의 윤리 381

S 시민의 윤리 [고난도 대비] 395

T 민주주의 [고난도 대비] 413

U 자본주의 433

V 평화의 윤리 457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01회 2025 실시 3월 학력평가 471

02회 2025 실시 5월 학력평가 474

03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477

04회 2026 대비 6월 모의평가 480

05회 2025 실시 7월 학력평가 483

06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486

07회 2026 대비 9월 모의평가 489

08회 2025 실시 10월 학력평가 492

09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495

10회 2026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498



D 성리학과 양명학

D 01 정답 ④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정답률 67%] 2026 대비 수능 5

중국 유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마음은 허령(虛靈)하여 모든 사물을 지각할 수 있다. 그러니
주희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에 나아가 더욱 꾸준히
궁구하면 어느 순간 모든 이치를 환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을 마음은 곧 이치이다. 사육에 가리지 않은 마음이 곧
왕수인 **단서** 심즉리
천리(天理)이므로 이것을 부모를 섬기는 데 실천하면 효이고
벗을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실천하면 신의와 어짊이다.

- ① 갑: 앎은 논리상 실천에 앞서므로 ~~앎이 항상 실천보다~~ 중요하다.
실천이 앞보다
- ② 갑: 구체적 사물에서 천명지성은 기질지성과 ~~별도로 존재한다~~.
공존함
- ③ 을: 격물의 물(物)은 탐구 대상일 뿐 도덕적 실천 대상이 ~~아니다~~.
맞음
- ④ 을: 치지는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행합일과 일치한다.
치양지
- ⑤ 갑과 을: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갑: 마음의 본체는 인의예지

단서+발상

- 단서** 갑: 사물에 나아가 궁구하면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됨 / 을: 마음은 곧 이치임
발상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KEY 주희는 마음의 본체를 인의예지로 보고,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를 양지로 본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 주희: 만물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격물치지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임
- 을 왕수인: 인간의 마음 [心] 이 곧 하늘의 이치 [理] 임.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음

| 선택지 분석 |

- ① 갑(주희)은 앎과 실천의 경중을 논한다면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② 갑(주희)은 현실의 구체적 사물에서 천명지성(본연지성)과 기질의 영향을 받은 성인 기질지성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을(왕수인)은 격물(格物)의 물(物)이 도덕적 실천 대상이라고 본다.
- ④ 을(왕수인)은 천리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라고 본다. 치지, 곧 치양지는 양지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행합일과 일치한다.
- ⑤ 갑(주희)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 즉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인 성은 양지가 아닌 인의예지이다.
함정 을(왕수인)만이 마음의 본체를 양지라고 본다.



정희주 | 2026 수능 응시 · 익산 이리남성여고 졸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두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④만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왕수인은 천리를 양지라고 보고, 치양지를 실현하는 과정이 지행합일과 일치한다고 보았어. 평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정답을 찾기 쉬웠을 거야.

D 02 정답 ③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정답률 70%] 2026 대비 9월 모평 15

중국 유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지(知)와 행(行)의 공부는 서로 나란히 짝하여 이르는 것이므로
주희 **단서** 지행병진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두 발이
서로 번갈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점차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을 지와 행을 사람들이 둘로 나뉘 보기에 한 생각[一念]이 일어날 때
왕수인 그것이 불선해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금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지행합일을 말하는 이유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행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단서** 지행합일

- ① 갑: 궁리(窮理)와 역행(力行)은 경중으로 보면 ~~궁리가~~ 더 중요하다.
역행
- ② 갑: 격물(格物)은 의념이 향하는 대상[事]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을
- ③ 을: 치지(致知)는 마음의 본체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이다.
양지
- ④ 을: 양지(良知)는 선악을 판단할 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임
- ⑤ 갑과 을: 인욕을 없애 ~~외부 사물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을: 천리는 마음에 있음

| 문제+자료 분석 |

- 갑 주희: 지와 행은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며, 궁리와 역행을 병행해야 함
- 을 왕수인: 지(知)는 행(行)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임. 따라서 지와 행은 본래 하나임

| 선택지 분석 |

- ① 갑(주희)은 지(知)와 행(行)을 경중으로 논하면 행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궁리(窮理)보다 역행(力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갑(주희)은 지와 행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지행병진을 주장한다.
- ② 갑(주희)에 따르면 격물(格物)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격물을 의념이 향하는 대상 [事(사)] 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본 사상가는 을(왕수인)이다.
- ③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이 곧 이치 [心即理(심즉리)]이며, **치지(致知)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이다.** **풀림**
- ④ 을(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다.
- ⑤ 을(왕수인)은 인욕이 양지의 실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인욕을 극복하여 마음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천리는 외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D 03 정답 ②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정답률 51%] 2025 실시 3월 학평 13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까닭은 본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희: 본성을 안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에 이르는 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은 앎이 지극해지는 것을 말한다. **단서 격물**
- 을: 마음을 다하고 본성을 아는 것을 '사물을 연구하고 앎을 넓히는 것'으로 삼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단서 치지**
왕수인: 마음이 곧 이치이다.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단서 심외무리 심외무물**

[보기]

- ㄱ.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는 그 자체로 완전한 앎인가? **갑 ×, 을 ○**
ㄴ. 천리는 본래 선하지만 인욕(人欲)에 가려질 수 있는가? **갑 ○, 을 ○**
ㄷ. 사물에서 천리를 실현해야 사물은 비로소 이치를 얻는가? **갑 ×, 을 ○**
ㄹ. 격물과 치지는 마음 안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인가? **갑 ○, 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오해 틀렸나?

ㄹ의 '마음 안의 천리'를 왕수인만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주희와 왕수인 모두 천리가 마음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이 모두 수양 방법으로 '존천리 거인욕'을 강조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덜 헷갈릴 수 있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 주희: 마음의 본성을 이치라고 봄(성즉리). 마음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는 같으므로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해 앎이 지극해지는 격물치지를 주장함
- 을 왕수인: 마음이 곧 이치라고 봄(심즉리). 이치는 내 마음 안에 있으므로 마음을 올바르게 드러내 치양지를 이루는 격물치지를 주장함

| 보기 분석 |

- ㄱ. 갑(주희)은 양지를 미완성의 상태로 보고, 사물에 나아가 이를 탐구하는 공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을(왕수인)은 양지를 완전한 앎의 상태로 보고, 양지를 자각하고 온전히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ㄴ. 갑(주희)에게 천리는 본연지성이자 사덕이며, 을(왕수인)에게 천리는 내 마음의 양지다. 갑(주희)과 을(왕수인) 모두 천리는 본래 선하지만, 인욕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려진 천리를 드러내기 위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존천리 거인욕의 수양을 주장한다.
- ㄷ. 갑(주희)은 이치는 만물의 운영 원리이자 존재 이유로, 부여하기 전에 만물에 이미 존재한다고 본다. 반면 을(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으므로 내 마음의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비로소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고 본다.
- ㄹ. 갑(주희)은 마음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격물의 수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상의 사건, 인간관계, 경전 등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고 천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지극한 앎인 치지에 이르러 천리를 보존할 수 있다. 을(왕수인)에게 천리는 모두 내 마음 안에 있다. 따라서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이치를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왕수인의 격물은 마음의 사득함을 제거하여 본래의 올바름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잡고 양지를 사물에 온전히 실현하면 치양지에 이르러 천리를 보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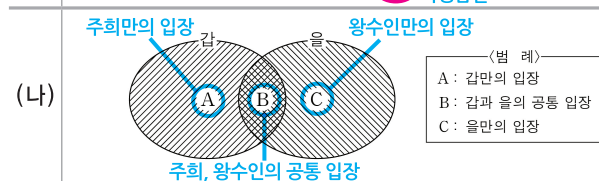
D 04 정답 ③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정답률 52%] 2026 대비 6월 모평 11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사람의 마음에는 이치[理]로서 성(性)이 내재하며, 사물 또한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완전한 앎에 이르러야 한다. **단서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

- (가) 을: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善)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앎을 지극히 하여 그 선을 실현하면 앎이 완전해지니, 이것이 곧 앎과 실천의 합일[知行合一]이다. **단서 지행합일**



[보기]

- ㄱ. **A**: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야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 **갑 ○, 을 ○**
- ㄴ. **B**: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 찾을 수 있다[求放心]. **갑 ○, 을 ○**
- ㄷ. **B**: 완전한 앎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격물(格物)이 필요하다. **갑 ○, 을 ○**
- ㄹ. **C**: 양지를 잘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養性] 한다. **갑 ○, 을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제+자료 분석 |

- 갑 주희: 이치는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에 다양하게 나타남. 격물치지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임
- 을 왕수인: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으며 [心外無理(심외무리)],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없음 [心外無物(심외무물)]. 격물치지란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일을 바로잡는 것임

| 보기 분석 |

- ㄱ. 갑(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 즉 천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것이 성(性)이다. 을(왕수인)에 따르면 양지가 마음의 본체이고 하늘의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사물도 없다.
- ㄴ. 갑(주희)과 을(왕수인)은 모두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여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갑(주희)과 을(왕수인) 모두 선한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구방심의 노력을 강조한다.
- ㄷ. 갑(주희)은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을(왕수인)은 격물을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두 사상이 모두 격물의 목적을 치지, 즉 완전한 앎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 점은 동일하다.
- ㄹ. 갑(주희)과 을(왕수인)은 모두 양지의 보존을 긍정하며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 한다고 본다. **양지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자 선한 본성을 말한다. 이러한 양지의 개념은 맹자에서 비롯되어 갑(주희)과 을(왕수인)에게 계승되었다. (골)**

오해 틀렸나?

ㄹ을 옳은 선지로 판단했다면 주희와 왕수인이 모두 맹자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라는 점을 기억하자.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 양지가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주희와 왕수인은 이러한 맹자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H 13 정답 ③ * 맹자와 장자의 사상

[정답률 90%] 2025 대비 수능 9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도(道)와 의(義)를 맹자 **단서** 크고 굳센 도덕적 용기 짝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가 쌓여서[集義]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의(의를 꾸준히 실천함)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 을** 좌망(坐忘)은 자신의 육신과 총명(聰明)을 모두 무너뜨려서 그 장자 **단서**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잊음 형제와 지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와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다.

[보기]

- ㄱ. 갑: 대인(大人)도 삶이 궁핍해지면 양지(良知)를 잃게 된다. **맹자** **단서** 잃지 않음
- ㄴ. 갑: 천명을 받은 군주는 민심을 잃어도 결코 쫓아내서는 안 된다. **맹자** **단서** 역성혁명을 주장함
- ㄷ. 을: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心齋]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장자** **단서** 심재
- ㄹ. 갑과 을: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 **본성을 훼손할 수 있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제+자료 분석]

- 갑 맹자: 이상적 인간인 대인(大人) 또는 대장부(大丈夫)가 되기 위해서는 옳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지는 크고 굳센 도덕적 용기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춰야 함
- 을 장자: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좌망(坐忘), 즉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의 수양을 해야 함

[보기 분석]

- ㄱ. 갑(맹자)에 따르면 양지는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도덕적 자각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삶이 궁핍해진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틀림**
- ㄴ. 갑(맹자)은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여 민심을 잃으면 그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 ㄷ. 을(장자)은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의 수양 방법을 통해 이상적 인간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ㄹ. 갑(맹자)은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며, 선한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을(장자)은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최아람 | 서울대 국어교육과 2025년 입학 · 서울 광영고 졸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은 백성들에겐 유효하지만, 선비는 항산이 보장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보존할 수 있기에 ㄱ이 오답임을 알 수 있어. 또한, 맹자의 역성 혁명론을 알고 있다면 ㄴ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ㄷ과 ㄹ은 도가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니 알아둬야 해.

H 14 정답 ① * 장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

★ 고난도 [① 49% ② 15% ③ 20% ④ 7% ⑤ 9%] 2024 실시 3월 학평 9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대인(大人)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어질[仁]과 은혜[恩]를 소중히 **장자** 여기지도 않는다. 옳고 그름도, 크고 작음도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명성이 들리지 않고 덕으로 칭송될 수 없다.
- (가) **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소인(小人)이므로, 스승이 없고 예법이 **순자** 없다면 오직 사사로운 이익밖에 보지 못한다. 따라서 수양을 거듭하여 본성을 변화시킨 뒤에야 덕을 완성할 수 있다. **단서** 이기적 본성을 수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함
- (나) **장자만의 입장** **순자만의 입장** **장자와 순자의 공통 입장**
-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인의(仁義)는 사회 혼란의 발생 원인이다. **갑(장자): 인위적인 규범은 사회 혼란의 원인임**
- ㄴ. B: 예(禮)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다. **갑(장자), 을(순자)의 공통점**
- ㄷ. C: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수양법이 존재한다. **순자만의 입장**
- ㄹ. C: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 **을(순자): 인간은 악한 본성을 타고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자료 분석]

- 갑 장자: 대인(大人)은 어질[仁]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음
- 을 순자: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성인의 가르침에 따른 수양을 거듭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함

[보기 분석]

- ㄱ. 갑(장자)은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이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세속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순자)은 악한 본성을 타고나는 인간이 성인이 제정한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익혀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본다.
- ㄴ. 갑(장자)은 예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며 이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뿐이라고 본다. 을(순자)은 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본다.
- ㄷ. 갑(장자)은 수양을 통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을 성인이라고 하였으며, 성인이 되기 위해 좌망과 심재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틀림**
을(순자)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화성기위의 수양법을 실천한 결과라고 본다.
- ㄹ. 을(순자)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을(순자)은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덕을 교육과 수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틀렸나?

ㄷ을 옳은 선지로 판단한 학생은 동양 윤리 사상의 경우 수양을 통해 도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이라는 용어는 유교 사상가와 도가 사상이 모두 사용하는 용어로 이상적 경지에 이른 인간을 말한다.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자연법은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에 참여한 것이다. 이성적 피조물은 자신의 방식으로 영원한 이성에 참여하고, 비이성적 피조물도 자신의 방식으로 영원한 이성에 참여한다.

→ 아퀴나스

- ① 인간은 신의 계시 없이는 어떠한 법도 인식할 수 없다. 있는 경우가 있음
- ② 모든 피조물은 신의 지혜에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다른
- ③ 인간은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영원법 전부를 파악할 수 있다. 없음
- ④ 신의 섭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모든 법은 영원법을 근거로 만들어짐
- ⑤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어긋난다. 반영되어 있음

| 문제+자료 분석 |

- 아퀴나스: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 피조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근원인 신 안에서 신의 은총과 구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봄. 신의 섭리인 영원법과 그것의 일부를 이성으로 인식한 자연법, 그것을 바탕으로 제정한 실정법의 종류를 구분하고, 만물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신의 의도에 참여함

| 선택지 분석 |

- ① 아퀴나스에게 법의 종류는 영원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법을 토대로 만든 인간의 법인 실정법도 있다. 이런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신의 계시가 없어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가 아니어도 인간이 지닌 이성으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반영하여 피조물이 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본다. 다만, 각자가 지니는 자연적 성향이 다르므로 발현되는 방식은 다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의 섭리를 파악하고 따르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종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골)
- ③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완전한 신의 의도를 전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신의 의도이자 신의 섭리는 이성으로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이므로 이성을 통해 일부를 인식하거나 자연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 ④ 영원법은 신의 섭리이며, 이를 인식한 것이 자연법이고, 자연법을 토대로 만든 것이 실정법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영원법에 의거한다.
- ⑤ 신의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의도와 섭리에 따라 만물이 운영되므로,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인간이 그 의도를 발휘하고 따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외적 인상들을 자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제우스의 질서에 일치함으로써 정념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단서) 운명에 순응할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음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야 한다.

을 두 개의 사랑에 의해 두 개의 나라가 형성된다. 하나의 사랑은 아우 (단서)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이다. 인간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신을 사랑해야 한다.

- ① 갑: 자건들 자체는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정념, 판단
- ② 갑: 자연의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어남
- ③ 을: 현존하는 악은 신의 본성에 있는 결함에 의해 존재한다. 인간의
- ④ 을: 인간은 최고선을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신
- ⑤ 갑과 을: 만물의 근원인 신은 이성적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갑: 있음

오해 틀렸나?

②번을 고른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연의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합정

하지만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자연은 비합리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자연의 질서에 따른 경험과 사건은 모두 큰 전체의 이익, 즉 최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 스토아학파(에픽테토스): 세계는 필연적 세계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신임. 신은 자연의 법칙이자 이성이자 필연적 인과법칙임.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하여 정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을 아우구스티누스: 신은 창조주이자 인격신임.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두 개의 나라가 형성됨. 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경멸할 때 형성되는 천상의 나라와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멸할 때 형성되는 지상의 나라가 있음

| 선택지 분석 |

- ① 갑(스토아학파)은 사건 자체는 필연적 인과법칙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다. 정념은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내면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원인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필연적 인과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념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
- ② 갑(스토아학파)은 자연의 모든 것은 최선의 상태로 일어난다고 본다. 세계의 질서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 ③ 을(아우구스티누스)은 악은 인간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신은 선만을 창조했으며,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생긴 선의 결핍이다.
- ④ 을(아우구스티누스)은 인간은 최고선인 신을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인 지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을(아우구스티누스)은 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질서 갑인 사랑을 강조한다. 물질보다는 인간, 육체보다는 영혼, 인간의 영혼보다는 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신을 통해 얻어진다.
- ⑤ 갑(스토아학파)은 만물의 근원인 신은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의 질서이자, 로고스라고 본다.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단서

갑: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가서 물속에 플라톤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선의 이데아**

(가) 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아리스토텔레스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 **단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임

플라톤만의 입장 갑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 을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갑(플라톤): ○, 을(아리스토텔레스): ○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갑(플라톤): ○, 을(아리스토텔레스): ○

ㄷ. B: 좋음이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갑(플라톤): ○, 을(아리스토텔레스): X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갑(플라톤): X, 을(아리스토텔레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단서 + 발상

단서 • 갑: 동굴의 비유

• 을: 행복은 영혼의 활동

발상 갑은 플라톤이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KEY 플라톤은 개별적 좋음과 독립된 보편적인 좋음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을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로 보면서, 그 자체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좋음은 없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이상주의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이다.
-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닌 아리스토텔레스이다.

step 2 벤다이어그램의 A~C에 대한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 갑(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중 이성이 비이성적인 부분인 기개와 욕구를 다스릴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개와 욕구는 본래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은 감각이나 욕구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지만 이성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인간의 생리적 욕구나 본능과 같은 것은 이성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고 본다.
- * ㄱ은 갑(플라톤)과 을(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입장에 해당하므로 A가 아닌 B에 들어가는 것이다.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 갑(플라톤)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면서, 정의로운 국가에서 개인은 자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은 국가를 자급자족적이고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라고 본다.
- * ㄴ은 갑(플라톤)과 을(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ㄷ. B: 좋음이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 갑(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만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좋음이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실천적 지혜이며, 실천적 지혜는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는 아니다. 그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 ㄷ은 갑(플라톤)만의 입장에 해당하며, 을(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B가 아닌 A에 들어가는 것이다.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 갑(플라톤)은 개별적 좋음과는 독립된 보편적 좋음, 즉 이데아가 현실세계와 구분되는 이데아계에 있다고 본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은 현실 세계의 ' 좋음 ' 혹은 ' 좋은 것 '이라고 말해지는,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 그 자체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좋음 ', ' 공통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좋음 '은 없다고 본다. **활정**
- * ㄹ은 갑(플라톤)의 입장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을(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 정답은 ③ ㄴ, ㄹ이다.

오! 틀렸나?

④를 답으로 고른 학생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개념을 더 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를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혼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 ★ 고난도 핵심 개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의 구성	•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성, 기개, 욕망 • 이성이 영혼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해야 함	•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성적 부분(이성),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감각, 욕구), 이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성장, 영양) • 이성적 부분이 비이성적 부분을 조절해야 함
영혼의 목적	• 영혼의 목적은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하고,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 • 이성적 활동이 영혼의 최고의 기능	• 영혼의 목적은 삶에서 덕을 실천하고 행복을 이루는 것 • 이성적 활동을 통해 덕을 실현하는 것이 영혼의 최종 목표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일한 종류에 속하면서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만물로 이루어진 우주도 하나이고,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신도 하나이고, 모든 지적 생명체들에게 공통된 이성도 하나이고, 법도 하나이다.

을: 단서 **이성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
우리 인간은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단서 **인간은 양태의 지위를 지님**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선이다. 따라서 이성은 각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 유지에 애쓸 것을 요구한다.

(나)

[보기]

ㄱ. A: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갑 O, 을 X**

ㄴ. B: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은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갑 O**

ㄷ. C: 자연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 **을: 신은 의지나 섭리를 지닌 존재가 아님**

ㄹ. C: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을: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어야 선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 단서**
- 갑: 공통된 이성은 하나임
 - 을: 인간은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임
- 발상** 갑은 스토아학파(아우렐리우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 KEY**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며, 인간은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스피노자는 신을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양태라고 본다.

문제 풀이 순서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스토아학파이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이성(logos)은 우주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끄는 힘이다. 이는 곧 신이자 자연으로도 표현된다.
-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신과 자연,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된 본성이다. 인간은 이러한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는 자기 자신 안에서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양태는 실체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실체의 속성이 변형된 모습에 불과하다.
- 스피노자는 신을 유일한 실체로 규정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별 사물은 실체가 변한 양태의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step 2 순서도에 ㄱ~ㄹ의 질문을 대입하여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 갑(스토아학파)은 인간과 신을 동일한 부류로 묶는 공통 본성을 이성이라고 본다.
- 을(스피노자)은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내는 여러 양태일 뿐이므로 신과 인간이 동일한 부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 갑(스토아학파)은 '예', 을(스피노자)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므로 A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다.

ㄴ. B: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은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 갑(스토아학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부동심(아파테이아)을 추구하였다.
- 갑(스토아학파)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정념에 지배당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며, 정념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행복으로 본다.
- * 갑(스토아학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다.

ㄷ. C: 자연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

- 을(스피노자)이 말하는 신은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본다.
- 을(스피노자)이 말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이므로 의지나 섭리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 * 을(스피노자)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므로 C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ㄹ. C: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 을(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법칙에 따라 살고 있고, 자연의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을(스피노자)은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은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은 선으로, 해로운 것은 악으로 여긴다고 본다.
- * 을(스피노자)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므로 C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 정답은 ① ㄱ, ㄴ이다.

오해 틀렸나?

- 을을 옳은 선지로 판단한 학생은 스피노자가 신을 자연 그 자체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신의 의지와 섭리로 설명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 을을 옳은 선지로 판단한 학생은 스피노자가 인간은 자기 보존을 본성으로 가지며(conatus),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은 선, 해로운 것은 악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 자기 보존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 ★ **고난도 핵심 개념**

-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파괴하는 요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음
- 모든 사물은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제거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법칙에 따라 살고 있고, 자연의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함
- 만물은 인과적 질서 속에서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의 여부는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들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인간은 자기 보존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경우에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을 느끼고, 반대로 자기 보존을 감소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 슬픔과 같은 수동적인 감정(정념)을 느낌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이라고 이해한다. → 스피노자
 능동적 감정(예: 기쁨)
 수동적 감정(=정념, 예: 슬픔, 불안)

- 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자연 그 자체임
- ②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정념
- ③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넘어지지 않음 목적은 존재하지 않음
- ④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 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 없음

단서 + 발상

- 단서**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양태이다.
- 발상**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 KEY**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을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라고 보며, 개별적 사물은 양태라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양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스피노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
- 인간의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언급한 부분을 통해서도 스피노자임을 알 수 있다.

step 2 선택지의 내용이 사상가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 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자연 밖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범신론).
 - 따라서 신은 자연 안에 내재하며, 자연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 ①은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기 보존이 증진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능동적 감정이며, 자기 보존이 감소하거나 저해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수동적 감정(정념)이다. 능동적 감정의 예로는 기쁨이 있으며, 수동적 감정의 예로는 슬픔이 있다.
 - 따라서 스피노자는 기쁨, 쾌락과 같은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정념에 예속되는 것을 경계한다.
 - * ②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서지 않으며, 자연의 본성은 인과적 필연성이다. 따라서 자연에 별도의 필연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함정

* ③은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이란 이성을 통해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인식하여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 반면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 불안과 같은 정념에 휘둘러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본다.

* ④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은 자연의 다른 존재도 지닌 능력으로 그 자체를 선이나 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함정
-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과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선이라고 본다.
- * ⑤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정답은 ④이다.

오해 틀렸나?

이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낯선 선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번 선지의 경우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 그 자체이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진술했을 뿐이며, ⑤번 선지의 경우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은 인간은 물론 자연의 다른 사물에게도 있는 능력이라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연결되었다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다.

* 스피노자의 사상 ★ 고난도 핵심 개념

개념	의미
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자연 그 자체임
실체와 양태	실체는 신뿐이며, 모든 사물은 신의 양태임
필연론	자연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로 이루어짐
정념 (Passions)	인간을 외부 원인에 의해 휘둘리게 하는 것
자유	자유는 이성을 통해 정념을 극복하고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
최고선 (지복)	지복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통해 실현됨
자기 보존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의 욕구 (conatus)를 가짐



최아람 | 서울대 국어교육과 2025년 입학 · 서울 광영고 졸
 ④, ⑤가 아주 헷갈리는 문제였어. 하지만 자기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인 코나투스(자기 보존)가 곧 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로 ⑤를 지울 수 있었지. 그리고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이나 그 이상의 신 역시 인과에 예속된다는 점을 떠올려 ④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어.

다음에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선유(先儒)들이 성(性)을 말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고, 지금 사람들은 또 더러 착오를 범하고 있다. 살아 있을 때는 성이라고 하고 죽으면 혼(魂)이라고 하니, 실제로 성과 혼은 다르며, 성은 마음(大體)에 대한 온전한 명칭이 아니다. 성이란 기호(嗜好)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서화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기호를 가지고 성이라 하는 사례이다.

→ 정약용

- ①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도덕적 삶과 인간의 생존에 기여
- ② 영지(靈知)의 기호는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주지권
- ③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에 의해 선행과 악행이 정해진다.
자주지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 ④ 형구(形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
인간은 있음
- ⑤ 신독(慎獨)의 수양은 반드시 본연의 인(仁)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사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됨

단서 + 발상

- 단서 성이란 기호
- 발상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 KEY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성기호설을 통해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임을 주장한 정약용이다.
- 정약용은 인간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욕구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해 인간의 욕구를 삶의 추동력으로 파악한다.
- 정약용은 사단의 단(端)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며 사단을 출발점으로 실제 생활에서 도덕적 실천을 함으로써 사덕(四德)이 형성된다는 단시설을 주장한다. 즉,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후천적인 것이다.

step 2 ①~⑤의 선택지가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 ①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본다. 인간의 욕구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성리학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욕구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의 기호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는 형구의 기호를 실현하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욕구는 영지의 기호를 실현하게 하여 도덕적 삶에 기여하며, 형구의 기호는 인간의 생존에 기여한다.
- * ①은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② 영지(靈知)의 기호는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정약용에 따르면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이다.
 -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자주지권에 해당한다. ▶ 함정
 - 영지의 기호와 자주지권 모두 선천적인 것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 * ②는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③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에 의해 선행과 악행이 정해진다.

-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자주지권을 지닌 존재이다. 즉, 인간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 정약용은 선행과 악행은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지 않는다. 정약용은 인간이 부여받은 자주지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선행과 악행이 정해진다고 본다.
- * ③은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④ 형구(形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

- 정약용에 따르면 형구(形軀)의 기호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육체의 기호로,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호이다.
 - 정약용은 형구를 지닌 존재 중에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형구를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 ④는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⑤ 신독(慎獨)의 수양은 반드시 본연의 인(仁)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유교의 기본적인 수양법이다. 정약용은 신독의 수양을 중시했으나, 신독의 수양이 본연의 인(仁)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 정약용에 따르면 인의예지의 사덕은 성이 아니다. 즉,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의예지의 덕은 사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일상에서 확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이다.
 - 따라서 인(仁)은 본연의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 * ⑤는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 정답은 ①이다.

오해 틀렸나?

②번을 옳은 선지로 판단한 학생들은 정약용이 이야기한 '영지의 기호'와 '자주지권'의 뜻을 혼동했을 수 있다.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로, 인간의 본성이다. 반면 자주지권은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정약용의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 정약용의 성기호설과 자주지권 ★ 1등급 핵심 개념

성기호설	- 의미: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임 - 영지(靈知)의 기호: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 →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 - 형구(形軀)의 기호: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육체의 기호 →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호
자주지권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성은 실천적 능력으로서, 즉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할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서 선택 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택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단서 이성의 역할은 선의지를 낳는 것임

→ 칸트

- ①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가능함
- ② 의지만 있다면 자연 본성 자체는 욕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받음
- ③ 이성은 선택 의지를 가진 개인에게만 고유할 뿐 보편적일 수 없다. 있음
- ④ 인간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체적 선이다. 선의지
- ⑤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택 의지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 있음

단서 + 발상

단서 이성의 사명은 선택 의지를 낳는 것임

발상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KEY 칸트는 이성은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지를 이끄는 능력이라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서 선택 의지를 낳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칸트이다.
- 칸트는 선의지가 행위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고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고,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택한다고 본다.

step 2 선택지의 내용이 사상가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선택지 ①~⑤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①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란 선의지를 말한다.
- 선의지의 선택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선의지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자 그 자체로 선택 의지이다.
- 따라서 칸트는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는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①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의지만 있다면 자연 본성 자체는 욕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 따라서 인간은 자연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지가 있더라도 욕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칸트는 인간은 본능적 욕구와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가 도덕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이성은 선택 의지를 가진 개인에게만 고유할 뿐 보편적일 수 없다.

- 칸트는 이성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보편적 능력이라고 본다.
- 또한 칸트는 실천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그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선의지라고 본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선의지는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가능한 것이다.

* ③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인간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체적 선이다.

- '인간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란 선의지를 말한다.
-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며,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 칸트는 이러한 선의지만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체적 선이라고 본다. 즉 그 자체로 무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 ④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한다.

⑤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택 의지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

-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택 의지'란 선의지를 말한다.
-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 따라서 선의지는 도덕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도덕법칙에 의해 제약된다.

항정

★ 정답은 ④이다.

오해 틀렸나?

⑤번을 옳은 진술이라고 오해했다면 선의지가 도덕법칙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는 어떤 법칙에도 제약되지 않는 무제한적 의지가 아니다. 선의지는 보편적 도덕법칙을 자발적으로 따르려는 의지일 때, 즉 도덕법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때 비로소 선택된다.

* 칸트의 선의지

★ 1등급 핵심 개념

-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인 의지임
- 선의지란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며,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임 → 선의지는 도덕법칙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
- 이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선택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임
- 선의지는 목적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자체적인 선임



정희주 | 2026 수능 응시 · 익산 이리남성여고 졸

칸트의 입장을 묻는 문제야. 칸트의 사상과 주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①, ②, ③은 옳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야. ④와 ⑤ 중에서 정답을 찾기 어려웠을 수 있어. 칸트는 선의지는 도덕법칙으로 제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⑤는 틀린 선택지야. 칸트를 주제로 고난도 문항이 자주 출제되니까 칸트와 관련된 개념들을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인간은 감각적 욕구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이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존재임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 의지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존재임
이렇게 자유 의지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 칸트
단서 무조건적 명령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단서+발상

단서 예지 세계, 감성 세계, 정언 명령

발상 같은 칸트이다.

KEY 칸트는 선의지가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라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인간이 감각적 욕구의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고 보는 칸트이다.

step 2 ①~⑤ 선택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 칸트는 자유 의지를 스스로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자율적 의지라고 본다.
 - 따라서 자유 의지가 곧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이다. '속박된'이라는 말은 '지키는, 따르려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 ①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 칸트는 자기 행복의 추구는 경향성(감각적 욕구)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의무라고 본다. 왜냐하면 심각한 불행과 고통은 도덕적 의무를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는 자기 행복의 추구가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 한편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따라서 자기 행복의 추구는 선의지를 증대하지 않는다. 함정
 - ②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다.
-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나 의욕하는 대상에 있지 않고, 의지(의욕) 자체에 있다고 본다. 즉, 선의지는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위 하려는 내적인 동기에서 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에 따라 행위 하려는 의지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함정
- 따라서 칸트는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이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란 신을 말한다.
- 칸트에 따르면 신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이므로 도덕 법칙을 따르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 법칙이 정언 명령이나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 따라서 칸트는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정언 명령으로 부과되지만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나 정언 명령으로 부과될 수 없다고 본다.
- ④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예지 세계의 성원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
- 그러나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 때문에 감각적 욕구나 욕망을 추구하기도 한다.
- 칸트에 따르면 의지의 자율은 인간이 예지 세계의 성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감각적 욕구나 외부의 원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만일 의지의 자율이 감성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자율이 아닌 타율이다. 함정
- 그러므로 의지의 자율성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 ⑤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한다.

★ 정답은 ⑤이다.

왜 틀렸나?

②번 선의지의 경우 선의지의 의미가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임을 이해해야 선의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복의 추구가 선의지를 증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 감성 세계와 예지 세계 ★ 1등급 핵심 개념

구분	감성 세계	예지 세계
의미	인간이 감각과 경험을 통해 접하는 세계	인간의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
특징	경험적, 관찰 가능한 세계 자연 법칙에 의해 결정됨 감정, 욕구, 본능의 영향을 받음	순수 이성의 세계 도덕 법칙과 자유가 존재 자율적이고 초월적인 영역



최아람 | 서울대 국어교육과 2025년 입학 · 서울 광영고 졸
'자기 행복의 추구가 의무와 일치할 수도 있다.'는 선택지를 본 적이 있는데, ②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걸 함참 고민하고 나서 깨달았어. 선의지는 그저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의지이고, 선의지를 의욕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오직 '행위의 도덕성' 하나뿐이야.

1회 01 정답 ⑤ * 벤담이 강조한 삶의 태도 · [정답률 88%]

| 선택지 분석 |

O 32 해설 참조

- ① 자연적인 욕구와 필수적인 욕구를 구분하여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비자연적이고 비필수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참된 실존의 회복을 위해 보편적 도덕 원리를 넘어서는 것은 실존주의의 입장이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나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는 삶의 태도를 추구한다.
- ③ 모든 감정에 초연해지기 위해 이성(로고스)을 발휘하는 것은 스토아학파의 입장이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필연적 인과 법칙을 깨닫고 감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부동심의 상태에 이른다.
- ④ 실천 이성이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감정, 경험적 요소 등 자연적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 것은 칸트이다. 인간은 이성을 지나지않 동시에 자연적 경향성을 지닌다. 칸트는 실천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 정언 명령의 형식에 따라 도덕 법칙을 제시하여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 ⑤ 사회 구성원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는 사회적 쾌락주의를 토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특히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일급 가치 기준을 통해 계산함으로써 쾌락의 증감에 따라 행위를 승인하고 부인하는 행위 원리(공리의 원리)를 제시한다.

1회 02 정답 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 [정답률 64%]

| 선택지 분석 |

K 07 해설 참조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궁극적 좋음은 행복이며, 행복은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 모두와 관련된다. 즉, 행복은 욕구적인 부분(품성적 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지성적 덕)과도 관련된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악한 행동은 의지의 나약함 혹은 무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 ③ 모든 감정과 행동에서 중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악의, 질투, 도둑질, 간통, 살인과 같은 것들은 항상 정도에서 벗어나므로 중용을 찾을 수 없다. 악덕 또한 마찬가지다. 지나침과 모자람에도 중용은 없다.
- ④ 품성적 덕은 이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과 관련된 덕으로, 이성으로 행위와 정념을 조절하는 상태를 포함한다. 용기는 이성에 따라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적절한 정념 상태를 찾는 것이므로 품성적 덕에 속한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의 올바른 행위로 덕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옳은 행위를 반복해야 품성적 덕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1회 03 정답 ④ * 제임스의 사상 [정답률 51%]

| 보기 분석 |

P 39 해설 참조

- ㄱ. 제임스는 관념의 참됨은 상황에 따라,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참됨은 관념에 내재해 절대적이고 고정된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ㄴ. 제임스는 유용성이 증명된 지식일지라도 상황의 변화로 더 이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는 달라진다고 본다.
- ㄷ. 제임스에 따르면 어떤 지식의 현금 가치는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실현할 때 드러난다. 따라서 신학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할 때 비로소 현금 가치를 지닌다.
- ㄹ. 제임스에 따르면 신념은 그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적 검증을 통해 실질적 유용성이 입증될 때 비로소 진리로 인정된다.

1회 04 정답 ④ * 장자와 맹자의 사상 [정답률 81%]

| 보기 분석 |

H 09 해설 참조

- ㄱ. 갑(장자)에 따르면 자신의 주관이나 경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귀천, 우열, 선악 등의 구분이 있으나 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만물은 각자 자신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므로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다.
- ㄴ. 을(맹자)이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에서 중요한 점은 향산(일정한 생업을 보장함)과 향심(변치 않는 떳떳한 마음)이다. 일반 백성은 향산이 없으면 향심을 기르기 어려우므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ㄷ. 을(맹자)은 군주는 도덕성을 토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으로 도덕적 자질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ㄹ. 갑(장자)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인위적인 도덕규범(인의예지)을 덜어내고 시비, 선악, 미추가 구분되지 않는 만물 평등의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 을(맹자)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도덕규범(인의예지)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부도덕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를 길러야 한다고 본다.

1회 05 정답 ⑤ * 혜능과 지눌의 사상 [정답률 64%]

| 선택지 분석 |

G 05 해설 참조

- ① 갑(혜능)과 을(지눌)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모든 중생의 본성(자성)은 곧 부처의 본성(불성)과 같다.
- ② 갑(혜능)과 을(지눌)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이 불성과 다르지 않음을 직관하고 자각해야 한다.
- ③ 갑(혜능)이 부정할 질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다. 중생이 처한 조건에 따라 본성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탐욕에 빠진 중생도 불성을 지닐 수 있다.
- ④ 갑(혜능)은 불성을 깨달으면 단박에 부처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깨달은 후 수행을 해야만 해탈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 ⑤ 을(지눌)이 긍정할 입장이다. 돈오점수는 단박에 깨달은 후 습기의 제거를 위해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도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1회 06 정답 ③ * 목자와 갈통의 사상 [정답률 77%]

| 선택지 분석 |

V 02 해설 참조

- ① 갑(목자)은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하는 정복 전쟁은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자국에 대한 방어 전쟁은 인정한다.
- ② 갑(목자)은 사람들이 서로 아울러 사랑하면(경애) 서로 이롭게 됨(교리)을 주장한다.
- ③ 을(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침해를 은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갈통)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를 넘어 인간 안보를 지향한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의 위협을 방어하는 국가 안보를 넘어 식량, 환경, 보건 등 인간의 생존과 존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간 안보가 실현되어야 한다.
- ⑤ 을(갈통)은 진정한 평화는 모든 폭력이 사라질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차별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없다.

1회 07 정답 ① * 플라톤과 모어의 사상 ... [정답률 78%]

| 선택지 분석 |

Q 01 해설 참조

- ① 갑(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 정치권력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가져야 한다고 본다.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는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갑(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 생산자는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본다. 통치자와 방위자는 나라의 분열이나 소유로 인한 파벌 싸움을 막기 위해 사적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 ③ 을(모어)은 유토피아에서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며, 잠을 자고 남은 시간에 여가 활동이나 연구, 오락 등을 즐긴다고 본다.
- ④ 을(모어)은 유토피아를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사치, 낭비가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라고 본다.
- ⑤ 갑(플라톤)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1회 08 정답 ① * 스피노자와 사르트르의 사상 .. [정답률 34%]

| 선택지 분석 |

P 02 해설 참조

- ㉠ 갑(스피노자)은 유일한 실체,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원인적 존재로 본다. 신은 필연성의 본성에 따라 활동하므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 ㉡ 갑(스피노자)은 신과 인간 모두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의 필연적 인과 법칙을 인식하면 모든 수동적 감정(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
- ㉢ 을(사르트르)은 무신론자로, 미리 주어진 본질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본다. 그러나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 항상 주체적인 선택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택의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불안을 느껴 도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합정**
- ㉣ 을(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로, 자유로울지 자유롭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없다. 즉,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
- ㉤ 갑(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신을 넘어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갈 수 없다. 을(사르트르)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고 본다.

1회 09 정답 ⑤ * 석가모니의 사상 [정답률 76%]

| 선택지 분석 |

F 06 해설 참조

- ㉠ 석가모니는 삶의 본모습이 고통이라고 본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등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이다. 삶의 본모습이 고통임을 알고 그 원인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수행해야 고통이 없는 경지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
- ㉡ 지혜는 수행의 결과로 얻을 수도 있지만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통의 원인을 찾거나,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행법을 모색하는 것이 있다.
- ㉢ 불교에서 자비는 누구나 괴로움을 겪는 현실 세계에서 자타의 구분 없이 모두가 고통을 피하고 평온하길 기원하는 보편적 공감의 마음(사랑의 마음)이다. 이는 집착과 구분을 비워야 가능하다.
- ㉣ 사성제 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인 인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집성제(고통의 원인)로 인해 고성제(고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며, 도성제(고통 소멸의 원인)로 인해 멸성제(고통 소멸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 ㉤ 석가모니는 고정되고 치우친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수행을 통해 고정된 것이 없다는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1회 10 정답 ③ * 밀과 칸트의 사상 [정답률 66%]

| 보기 분석 |

O 53 해설 참조

- ㄱ. 갑(밀)은 모든 도덕적 행위가 자신의 쾌락을 증진한다고 보지 않는다. 자신의 쾌락이 줄더라도 다수의 행복이 높아지면 도덕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을(칸트)은 의무의식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하므로 도덕적 행위 후 쾌락이 생길 수는 있으나 모든 도덕적 행위가 항상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ㄴ. 갑(밀)에게 행복은 의무에서 나온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쾌락 증진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을(칸트)에 따르면 행복은 주관적 목적이자 바라는 바가 실현된 것으로, 도덕성(의무)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
- ㉠ 갑(밀)은 행위의 결과로, 을(칸트)은 행위의 동기로 도덕성을 판단한다.
- ㉡ 갑(밀)은 행복을 쾌락에서 찾으며 쾌락과 행복 증진을 도덕의 기반으로 삼는다. 반면, 을(칸트)은 도덕의 기반을 도덕 법칙, 선의지, 의무 의식에 둔다.

1회 11 정답 ④ * 흄의 사상 [정답률 60%]

| 보기 분석 |

N 06 해설 참조

- ㉠ 흄에게 도덕 판단은 특정한 성품이나 행위를 관찰할 때 생기는 시인과 부인의 정서에 의해 결정된다. 이성만 사실을 인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도덕적 신념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도덕성은 이성적으로 증명되거나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다.
- ㉡ 흄에 따르면 선악은 그것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주체의 감정과 정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 흄에 따르면 도덕은 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품이나 행위를 보는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느낌으로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해 판단된다.
- ㉣ 흄은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모든 대상이 유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일반적 쾌락은 유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1회 12 정답 ① * 동학과 위정척사 사상 .. [정답률 81%]

| 선택지 분석 |

I 07 해설 참조

- ㉠ 갑(동학)은 만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종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도와 정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본다.
- ㉡ 갑(동학)은 유교와 성리학적 질서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유교의 핵심 덕목인 인과 그 근본인 효제의 정신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 ㉢ 을(위정척사)은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고, 유교와 성리학의 정신인 위계와 봉건적 신분 질서를 수호하려 한다.
- ㉣ 을(위정척사)은 서양의 도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인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본다.
- ㉤ 갑(동학)과 을(위정척사)은 민본정신의 훼손, 외세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대응으로 민족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으며,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보국안민을 강조한다.

1회 13 정답 ②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 [정답률 51%]

| 보기 분석 |

D 03 해설 참조

- ㉠ 갑(주희)은 양지를 미완성의 상태로 보고, 사물에 나아가 이를 탐구하는 궁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ㄴ. 갑(주희)에게 천리는 본연지성이자 사덕이며, 을(왕수인)에게 천리는 내 마음의 양지다. 갑(주희)와 을(왕수인) 모두 천리는 본래 선하지만, 인욕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갑(주희)은 이치는 만물의 운영 원리이자 존재 이유로, 부여하기 전에 만물에 이미 존재한다고 본다.
- ㉣ 갑(주희)은 마음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격물의 수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을(왕수인)의 격물은 마음의 사욕함을 제거하여 본래의 올바름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잡고 양지를 사물에 온전히 실현하면 치양지에 이르러 천리를 보존할 수 있다.

차 례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 1등급 대비

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1. 공자, 맹자, 순자 [고난도 대비]	02
★ 02. 성리학의 양명학 [1등급 대비]	06
★ 03. 이황, 이이, 정약옹 [1등급 대비]	10
04.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16
05. 원효, 의천, 지눌	18
06.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	20

II 서양 윤리 사상

* 서양 사상의 계보 [1등급 대비 특강]	22
07.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난도 대비]	24
08.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28
09.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30
10. 합리론과 경험론 [고난도 대비]	32
★ 11. 공리주의와 칸트 [1등급 대비]	34
12.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38

III 사회사상

1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고난도 대비]	40
14. 사회 계약론과 민주주의 [고난도 대비]	42
15. 자본주의	44
16. 평화	46

06 노자, 장자의 도가 사상

★ 노자와 장자의 사상

성인(聖人)은 억지로 일을 꾸미지 말고,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네.



노자

맞습니다. 아무것도 얹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장자

	노자	장자
도(道)	•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 자연을 생성·운행하는 원리 •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존재 • 상반상성: 서로 반대되기에 서로 성립될 수 있음	•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음 • 도의 관점에서 만물은 모두 평등 → 우열, 미추, 선악 등을 가릴 수 없음
이상적 경지	• 무위자연: 인위를 행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것 •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음, 겸허·부쟁의 덕 • 성인(聖인): 이상적 인간상	• 소요유: '도(道)'를 깨닫고 인위에서 벗어난 정신적 자유의 경지 • 제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 • 물아일체: 자연 만물과 하나 되는 경지
주요 사상	• 소국 과민(小國寡民): 백성들이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자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 무위의 정치: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 좌망: 조용히 앉아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 심재: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움

★ 문제 풀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구분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도가 사상의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상가를 굳이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각 사상가만의 핵심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두면 사상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될거야.

소크라테스 선생,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입니다.
더 바라는 게 있나요?



소피스트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지기
쉬운 궤변에 불과합니다.



소크라테스

★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구분	소피스트(상대주의)	소크라테스(보편주의)
특징	- 지식과 윤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됨	- 지식과 윤리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것 -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됨 선, 이성적·정신적 가치를 중시함
공통점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 프로타고라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 트라시마코스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 고르기아스	- 주지주의: 덕은 지식으로부터 나옴 - 지행합일: 덕 있는 자는 반드시 실천함 - 지덕복합일설: 덕을 아는 자 = 덕 있는 자 = 행복한 자 - 산파술: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게 함
영향	경험주의, 공리주의	이성주의, 관념론
평가	-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음 -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음	-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실을 설명하거나 비판할 수 있음 - 다양한 가치를 확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공통점	철학의 주제를 자연에서 인간으로 삼음	

★ 문제 풀이

보통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나와! 소크라테스는 지덕복합일설로 **덕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덕을 행한다[주지주의]**고 주장하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주지주의+주의주의]**고 했다는 점을 들어 두 사상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뒤!

어떤 행위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 우리는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합니다.



벤담

쾌락의 양으로만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에는 쾌락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밀

★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구분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밀의 질적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도덕적 행동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최대화하는 행위	
쾌락	- 모든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음 - 쾌락은 행복을 초래하고 고통은 불행 초래	-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음 - 타인의 행복에 대해 느끼는 쾌락도 높은 수준의 쾌락임 - 높은 수준의 쾌락: 장기적, 계속적, 점진적

★ 현대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는 공리주의 - 일반적으로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적인 특징을 지님 - 개별 행위가 가져오는 공리를 계산하기 어렵고,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규칙 공리주의	-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함 -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공리의 원리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상식적 도덕이나 사회의 전통, 도덕적 직관 등과 일치할 가능성이 큼
선호 공리주의	-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된 고전적 공리주의와 달리 더 포괄적인 의미인 선호(選好)를 통해 행복을 설명함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위가 옳다고 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습니다.



칸트

★ 칸트 윤리 사상

도덕 법칙 강조	•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함 •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성)에 의해 세워짐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강조	•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인 •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선의지에 따른 행위 = 도덕적 행위)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 형태로 제시	• 정언 명령: '무조건 ~하라'와 같은 무조건적인 명령 • 대표적인 도덕 법칙 ① 보편주의: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② 인격주의: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 ③ 자유주의: "의지가 자기 준칙에 의해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현대 칸트주의: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조건부 의무	•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머릿 속에 떠오르는 '아무래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직관적 의무 •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절대적으로 보이는 의무도 인간의 직관과 상식에 따라 유보될 수 있음
조건부 의무의 적용	• 하나의 의무는 또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함 •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됨
의의	•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줌 • 인권 사상의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 문제 풀이

흠은 앞 단원에 등장하는 사상가이긴 하지만, 공리주의 사상가들과의 비교, 그리고 칸트와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의 특징과 칸트주의의 특징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겠지?



나만의 비법 정리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